

자녀출산 전후의 부모들을 위한 양육여건 및 부모교육 실태 조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A Survey on Child Rearing Conditions and Parent Education for
Parent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박영애 · 이갑숙* · 나종혜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대전광역시청 여성정책과*

Park, Young Yae · Lee, Gab Sook* · Rha, Jong Hye
Dept. of Child Development & Guidance, Hannam Univ.
Daejeon Metropolitan City Municipal Hall, Div. of Women's Polic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a fundamental data for developing a policy concerning women and child rearing and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young parents who are around their childbirth, a period crucially important both for the parents in terms of the role adjustment, career management, and family finance, and for the infants in terms of its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ubjects were 509 mother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currently living in the Metropolitan City of Daejeon. Data were obtain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in two major areas of pregnancy-delivery-childcare and parent educa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mostly through frequency analysis, percentiles, t-tests, and F-tests.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es were organized along the following areas and issues: Pregnancy(family planning, regular check-ups, difficulties, prenatal education, costs, etc.); delivery(type of delivery, delivery related experience, costs, clinic/medical institute of choice, worries/problems, help/supports, etc.); postpartum care(place, kinds of help and helper, costs, postpartum care facilities, etc.); childcare circumstances(place, carer, time schedules, childcare centers or facilities feeding and weaning, etc.); husband's attitudes and involvement in the overall process; working mothers(maternity leave, temporary retirement for child rearing, etc.); and, parent education(family planning, pregnancy, delivery, postpartum care, child rearing, areas or issues needing parent education, facilitative and hindering factors to ideal parenting, etc.).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pregnant mothers and postpartum mothers,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groups of different income levels, mothers and fathers of different educational levels, mothers of first pregnancy(or childbirth) and experienced mothers were also analyzed. Several conclusions with suggestions were drawn in relation to the need for strong implementation as well as developing of policies on women and childcare and for developing a new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Key words : childbirth, child rearing conditions, parent education, survey

* 이 논문은 2001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001-002-C00317)

Corresponding author : Park, Young-Yae

Tel : 042)629-7441 Fax : 042)629-7437

E-mail : yyp7441@hanmail.net

I. 서론

자녀출산 전후의 시기는 가족 형성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부부에게는 상호 적응,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중역할 수행, 가정과 사회의 새 구성원이 될 자녀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 등의 새로운 발달 과업들이 수행되는 시기이고,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급속히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인생의 기틀이 형성되는 기간이라고 볼 때, 모든 출산의 경험은 개인, 가족, 사회 모두에게 있어 고유한 중요성을 지니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유아를 위한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증가해 왔어도 자녀출산기의 부모 역할이나 양육여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극히 희소하였다. 따라서 임신기나 출산후 신생아를 돌보는 부모들의 어려움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도외시 되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임신·출산·육아의 부담과 사회적인 인식부족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진 49.7%에 머물고 있다. 특히 24~35세 사이의 가입 연령대 여성의 이직율은 매우 높아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력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00).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나아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로 정부가 모성보호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시행해 온 지 1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¹⁾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매킨지는 우리나라가 「톱10국가」에 진입하기 위해 2010년까지 필요한 신규 전문인력의 수급은 여성 인력의 활용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육아정책에 달려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조선일보, 2001. 10. 26).

비록 우리나라가 이제 가사노동의 기계화·전자

화, 가족의 소규모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페미니즘 담론 활성화로 인한 여성 의식변화와 사회 진출 증가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증가시키는 개인적인 여건은 어느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이갑숙, 1997), 아직도 사회 제도적으로나 관습적으로, 그리고 심리정서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편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은 여성들이 그야말로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아이를 낳으면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 퇴직자의 70%정도가 육아문제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들의 선택이 일의 포기보다는 자녀 출산의 기피로 나타나, 급기야는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7로 떨어지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지자체들의 특이한 노력들까지 등장하고 있으나(조선일보, 2003. 1. 4, 중앙일보, 2003. 1. 6), 이러한 방안들로는 결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출산을 반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부가 가족과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강력한 의지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20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인적 요구에 따라 맞벌이 부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영유아가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출산 후 양육을 위한 공백기를 갖기보다 취업을 지속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개인적인 변화의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는 고스란히 개별 가족과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과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하는 젊은 부부들, 주말에만 또는 한 달에

1) 원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자는 1만1천626명, 육아휴직자는 1천 716명(남성 41명)에 불과하다. 여성노동단체에서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출산휴가를 2개월만 주거나 휴가 이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등 많은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임신 출산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를 일삼는 일도 여전했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휴가를 쓸 경우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여성신문, 2003.2.7).

두세번 정도 아이를 만나는 주말형 가족들, 자신의 일생을 통합하며 정리해야 할 시간인 노년기에 연령에 맞지 않는 양육의 책임과 노동을 부담해야 하는 조부모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인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거나 무책임 또는 무능력한 비전문가들로부터 양육받고 있는 아이들, 이들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다.

비록 모성보호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어머니가 직접, 또는 어머니 혼자서 육아를 담당하기에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만 해도 현재 668개의 보육시설 가운데서 영아전담시설은 두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대전광역시 보육정보센터, 2002). 최근에 이르러 바람직한 육아정책에 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증가하고 공보육의 역할 증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박영애, 2001). 그러나 육아문제는 성인의 적절하고 충분한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의 어린 아동을 위해서는 물론 그러한 자녀를 둔 모든 부모, 특히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하고도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서, 정책적으로는 물론 부모를 위한 사회교육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출산 전후의 부모들의 출산 및 양육여건에 대해 알아본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출산할 자녀의 양육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양육에 필요한 자원은 어떤 형태를 언제 얼마나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준비와 계획하에서 자녀를 가지게 되었는지 등이 포함된다. 이는 주변으로부터 충분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자녀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할 젊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 인식과 태도 및 요구와 기대를 비교적 상세히 파악해 봄으로써, 출산 전후 부모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과 같은 간접적 지원과 더불어, 부모가 주어진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지원하는 보다 직접적,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위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자녀출산을 전후하여 부모들이 받아들인 부모교육의 실태를 파악해 본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교육의 내용(가족계획, 임신, 분만, 출산준비, 산후조리, 자녀양육)과 교육을 받은 장소 및 교육주체, 부모교육의 필요성 여부,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여건 등을 살펴본다. 즉, 출산 전후의 부모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함께, 현재까지 그들이 받아들인 부모교육의 형태와 양, 내용을 파악해 봄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구조 및 가족형태 속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 따르는 문제와 필요한 도움에 관한 여러 가지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부모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행된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실태조사의 형태를 띄고 있어 다소 평면적이고 단순한 내용들의 집합으로 간주되어 버릴 수도 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거의 다루지 못해왔던 여성의 의식과 심리적 경험 및 문제점과 기대들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보여줄 수 있어, 그 시기에 관련된 경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행·재정적, 교육적 자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준비하는데 고유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면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범위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 5개 행정구역(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을 그 범위로 하고, 임신 초기에서 출산 후 1년 이내에 있는 여성 중 2002년 3월말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집단의 추출방식은 5개 행정구역의 상주 인구비율에 따라 소집단별 표본규모를 강제배분한 후 5개구에 소재하고 있는 산부인과, 소아과 및 보건소 등에서 지역분포·여

성의 취업여부·산전과 산후를 고려하는 방식의 비례 및 불비례 층화 표본추출법을 병용하였다. 임신기 여성들은 대부분 산부인과나 보건소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출산 후에는 대부분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소아과나 보건소를 방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접촉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표본규모는 총 600명으로, 출산전과 출산후 각 300명씩, 그리고 취업모와 비취업모가 각 300씩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실제로 조사에 응한 총 응답자 수는 517명이었으며, 현실적으로 아직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월등히 많은 관계로 어머니 직업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동수로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부실한 응답(응답률 80% 이하)을 제외한 최종분석 사례수는 509명이었다.

2. 조사방법 및 도구

본 연구는 특정지역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실태조사'의 범주에서 수행된 과제로서, 조사는 2002년 4월~6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면접이 병행되는 설문조사였다. 조사자의 이해부족과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학 전공의 대학원생 2명과 학부 4학년생 10명으로 구성된 12인의 조사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교육과 더불어 2차에 걸친 연습용 모의조사를 실시해보게 함으로써 조사의 전반과정에 숙달되도록 하였다.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임부용과 산모용, 2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크게 출산·양육 관련 여건에 대한 인식과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임신, 출산, 산후조리, 양육, 남편의 참여, 취업여성 관련 추가정보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양육여건 및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7개부분으로 범주화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계획과 기대, 실제의 경험과 어려움 및 요구사항 등과 아울러 현재까지 받아본 적이 있는 부모교육의 내용, 형태, 경로, 교육 주체, 기간, 만족도, 바람직한 부모상과 부모의 조건, 희망하는 부모교육의 내용과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부용과 산모용의 문항구성은 기본적으로 동형검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출산 및 산후조리와 양육에 관련된 내용들은 임부의 경우 문항 진술방식이 “~할 계획입니까?” 등의 적절한 표현으로 조정되었다. 각 설문지의 내용 영역과 문항수는, ① 임신(41), ② 출산(임부용 : 14, 산모용 : 22), ③ 산후조리(임부용 : 4, 산모용 : 6), ④ 양육(임부용 : 14, 산모용 : 15), ⑤ 남편의 참여(27), ⑥ 취업 여성을 위한 추가문항(임부용 : 24, 산모용 : 22), ⑦ 부모교육(7개 하위영역 45문항)이다. 임부용과 산모용의 문항수 차이는 대체로 임부의 경우 아직 출산전이어서 해당이 되지 않는 문항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도구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을 위한 설문지의 모든 문항들은 개방형 질문들로 구성된 pilot study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자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논의와 검토 및 조정을 거쳐 다듬어졌고, 46명(임부 22명, 산모 24명)의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되어 완성되었다.

3. 자료처리

조사자료는 SAS를 이용하여 처리되었으며,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빈도분석과 백분율이 사용되었다. 점수화가 가능한 평정척도가 사용된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소득, 어머니의 취업여부, 초산(또는 첫 임신)/경산(또는 두 번째 이후의 임신), 산전(임부)/산후(산모)등의 변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간 평균차 검증을 실시해보았으며, 그 결과들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표 제시없이 t값이나 F값과 유의수준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해당결과 부분에 추가적으로 소개되었다.

분석된 결과들은 임부와 산모의 경우가 동시에 제시되는 방식으로 소개되었는데, 이는 그것이 표집 전체의 평균치를 제시하는 방식보다 두 집단간의 차이를 보다 쉽게 볼 수 있고, 그리하여 자료를 응답자의 실제에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두 집단간의 대비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부집단과, 주어진 여건에서 이미 영아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09

변인	구분	빈도, 비율(%)1	변인	구분	빈도, 비율(%)
아버지 연령	~30세	188(36.9)	어머니 연령	~29세	274(53.8)
	31~35	235(46.2)		30~34	193(37.9)
	36~40	68(13.4)		35~39	32(6.3)
	41~	13(2.6)		40~	7(1.4)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91(17.9)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57(30.8)
	전문대/대졸중퇴	92(18.1)		전문대/대졸중퇴	121(23.8)
	대졸	318(62.5)		대졸	221(43.4)
아버지 직업	무직(주부)	5(1.0)	어머니 직업	무직(주부)	356(69.9)
	전문직	81(15.9)		전문직	56(11.0)
	관리직	75(14.7)		관리직	8(1.6)
	사무직	119(23.4)		사무직	34(6.7)
	판매서비스직	117(23.0)		판매서비스직	33(6.5)
	기술생산직	64(12.6)		기술생산직	3(0.5)
	기타	41(8.1)		기타	13(2.6)
출산전/후 여부	산모	256(50.3)	동거가족	조부모	20(3.9)
	임부	253(49.7)		외조부모	1(0.2)
				사촌/외사촌	8(1.6)
				없음	479(94.1)
가구당월 평균소득	150만원 미만	100(19.6)	결혼년수	3년 미만	196(38.5)
	150-250만원 미만	248(48.7)		3-5년 미만	138(27.1)
	250-350만원 미만	81(15.9)		5-10년 미만	142(27.9)
	350만원 이상	41(8.1)		10년 이상	24(4.7)
자녀수	0명	53(10.4)			
	1명	183(36.0)			
	2명	151(29.7)			
	3명	32(6.3)			
	4명	1(0.2)			

표 2. 가족계획 관련사항

문항 요지		빈도(%) <평균>	
		임부	산모
희망 자녀 수	1명	35(14.0)	29(11.6)
	2명	165(66.0)	168(67.2)
	3명	48(19.2)	48(19.2)
	4명 이상	2(0.8)	5(2.0)
가족 계획 시작 시기	결혼전부터	55(22.3)	52(20.7)
	결혼하면서	93(37.6)	95(37.9)
	임신후부터	25(10.1)	28(11.2)
	첫 아이를 키우면서	35(14.2)	41(16.3)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10(4.0)	12(4.8)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27(10.9)	22(8.8)
	기타	2(0.8)	1(0.4)
원하는 성별	딸	48(19.2)	54(21.3)
	아들	83(33.2)	77(30.4)
	상관 없었다.	119(47.6)	122(48.2)

양육을 수행하고 있는 산모집단간의 크고 작은 차이를 통해, 출산을 전후한 여성들이 경험하는 기대와 좌절, 요구와 순응 등에 얽힌 미묘한 심리변화의 단면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짚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자료의 분량 관계로, 본 조사에 부여된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실태보고를 하면서도 논의를 위한 결과 재언급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논의가 아니라 결과부분의 해당위치에 논의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조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 1) 전체 비율이 10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 차이는 무응답을 나타내는 것임

2. 임신 관련 여건 현황

1) 가족계획

임신과 관련하여, 희망 자녀수, 가족계획 시점, 원하는 자녀성별 등을 알아본 결과는 <표2>와 같다.

희망하는 자녀수는 임부와 산모 모두 2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명으로서, 이는 최근의 크게 낮아진 출산율(1.17)을 최저점으로 출산율이 다소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가족계획은 '결혼하면서'와 '결혼전부터'가 약 60%에 이르나, '첫째아이를 키우면서'등 임신 후부터한 경우도 40%에 이르고 있어, 아직도 가족계획에 대한 준비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원하는 성별은 아직 아들이 딸보다 훨씬 높으나, '상관없다'는 응답도 절반을 육박하고 있어 적어도 의식적인 사고 수준에서는 과거에 비해 남아 선호가 크게 약화된 것을 볼 수 있다.

2)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

<표 3>에 의하면, 정기검진은 이제 거의 모든(98% 이상) 임부와 산모가 받고 있어 건강상의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증가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요구 확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주 검진장소는, 임부의 경우는 종합형 개인병원(44.6%)이 가장 많았으나 산모의 경우는 개인의원(47.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출산후에는 대형병원 보다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기검진 횟수는 임부가 평균 7.5회(평균 임신기간은 6.7개월이었음), 산모가 평균 12.2회(신생아의 평균연령은 4.9개월이었음)로서, 임신기간 중에는 월 평균 1.1회정도였고 출산후에는 월평균 0.7회정도였다. 산모의 경우는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검진

표 3. 정기 점진의 장소, 횟수, 동반자

문항 요지		빈도(%) <평균>	
		임부	산모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 이용 여부	예	247(98.0)	253(99.2)
	아니오	5(2.0)	2(0.8)
검진장소	대학병원	38(15.3)	24(9.8)
	종합형 개인병원	111(44.6)	101(41.1)
	개인의원	94(37.7)	117(47.3)
	보건소	6(2.4)	4(1.6)
	기타	0(0.0)	0(0.0)
검진횟수	총 회	<7.5>	<12.2>

표 4. 정기검진의 종류별 횟수와 필요도

검진종류	임부		산모	
	검진횟수	필요도1)	검진 횟수	필요도
초음파	7.2	2.6	10.9	2.7
기형아검사	1	2.7	1.1	2.7
혈액검사	1.3	2.6	1.5	2.7
소변검사	1.3	2.6	1.5	2.7
풍진검사	1	2.6	1	2.7
입체 초음파	1.5	2.2	1.5	2.1
임신중독증	0.9	2.5	1	2.6
태아 심전도	1.7	2.5	1.3	2.6
태동검사	1.8	2.6	1.9	2.6

1) 3점 척도 있음(1: 별로 필요없다, 2: 보통이다, 3: 꼭 필요하다)

횟수가 많게 나왔다($t=2.11^{*2}$).

1) 5점 척도였음(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정기검진의 종류별 횟수에서는 초음파 검사가 단연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태동검사였다. 정기검진의 필요성 인지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체 초음파의 경우는 필요성 인식에 비해 검사횟수가 높게 나와 꼭 필요하고 적절한 검사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정기검진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어려움은 소요비

용 부담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진료·상담시간 불충분, 정보·설명 부족, 예약이 어렵고 오래 기다림, 검사의 이유·종류·필요성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나왔다(표5). 이러한 어려움은 대체로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높게, 그리고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높게 느끼고 있었다. 즉, 초산인 경우가 경산인 경우보다 진료·상담시간 불충분($t=3.73^{***}$), 정보·설명부족($t=2.87^{**}$), 기다림($t=2.21^{*}$), 검사에 대한 안내부족($t=2.18^{*}$)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었고, 비취업모인 임부가 취업모인 임부보다 기다림($t=-3.60^{***}$), 검사에 대한 안내부족($t=-2.35^{*}$), 먼 거리($t=-2.27^{*}$), 시간내기 어려움(임부: $t=-4.31^{*}$, 산

표 5. 정기검진 관련 어려움

정기검진	정기검진에 대한 평가1)	
	임부	산모
검사의 이유·종류·필요성에 대한 안내 부족	2.5	2.3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와 설명 부족	2.6	2.4
검사 비용 부담	3.0	3.0
진료시간이 짧아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없음	2.6	2.6
거리가 멀어 불편	2.3	2.2
시간을 내기가 어려움	2.2	1.9
교통편이 불편함	2.2	2.0
예약이 어렵거나 오래 기다림	2.5	2.4
종사자들의 불친절	2.1	1.9

2) 이후부터는 부가적으로 실시된 t검정과 F검정의 결과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도(*기호)만 첨부하는 식으로 표기될 것이며, *는 P<.05, **는 P<.01, ***는 P<.001을 의미한다.

모($t=-2.58$) 등으로 인한 불편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비취업모가 기다림이나 시간내기를 더 어려워하는 것은 전업주부의 일상이 반드시 취업주부보다 한가롭지만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집단의 시간 개념이나 심리상태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3) 임신중 태교 노력

태교는 대다수의 임신부(임부:75.8%, 산모:76.0%)가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태아를 위한 노력으로는, 본인의 흡연 삼가, 약·주사 사용 신중, 음주 삼가등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주위사람 흡연 제재, 태아에 해로운 기호식품 삼가, 매사에 긍정적 생각·마음가짐 편히함 등이 그 다음으로 나왔다. 이러한 노력은 첫자녀 임신인 여성이 둘째 자녀 이후의 임신인 여성보다 높게(본인 흡연 삼가, 주위사람 흡연제재, 태아에 해로운 기호 식품 삼가, 영양 균형 식사, 좋은 음악 듣기, 좋은 책 읽기 등에서), 비취업모인 산모가 취업모인 산모보다 높게(매사에 긍정적 생각·마음가짐 편히함, 잠자리·자는 자세 주의, 좋은 책 읽

기 등에서) 나왔으며,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대졸 여성인 경우 본인 흡연삼가, 주변 흡연제재, 태아에 해로운 기호식품 삼가, 좋은 음악듣기 등에서 높게, 고졸여성은 좋은 책읽기에서 크게 낮게 나옴),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고졸이하인 아버지를 남편으로 둔 임부인 경우, 주위 흡연 제재, 해로운 기호식품 삼가, 좋은 책읽기, 좋은 그림·사진보다 등이 낮게,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좋은 음악 듣기 가 높게 나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부모에 대한 과학적 태교 실천의 중요성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4) 임신관련 소요비용

임신 관련 소요비용으로는 의료비(검사 등을 포함)가 가장 높게 나왔고(임부:26.6만원, 산모:27.3만원), 그 다음이 출산준비물, 영양제·보약, 의복, 음식, 태교관련 등의 순으로 나왔다(표7). 소요비용 총액의 평균은 임부의 경우 73.2만원, 산모의 경우 114.9만원으로 나왔다. 이 비용은 당연히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월평균 소득 350만원 이상인 집단(평균 168.0만원)이 소득이 보다 낮은 세

표 6. 태교의 내용별 실시

태교 위한 노력	수행도 ¹⁾	
	임부	산모
말과 행동 조심	2.2	2.2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 마음가짐을 편히 하려고 노력	2.3	2.3
좋은 음악 듣기	2.2	2.1
좋은 그림이나 사진 보기	1.9	1.8
좋은 책 읽기	2.2	2.0
마음 안정에 도움 되는 활동하기 (예 : 십자수, 퀵트 등)	1.6	1.7
영양·균형 있는 식사 섭취	2.1	2.1
태아에게 해로운 기호식품(콜라, 커피 등) 삼가	2.3	2.4
약·주사 사용에 신중	2.7	2.8
음주 삼가	2.7	2.8
본인의 흡연 삼가	2.8	2.9
주위 사람의 흡연 제재	2.5	2.6
잠자리와 자는 자세에 주의	2.1	2.1
남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	2	2.1

1) 3점 척도 있음(1: 별로 필요없다, 2: 보통이다, 3: 꼭 필요하다)

표 7. 임신관련 비용

문항 요지		임부	산모
		빈도(%)	빈도(%)
임신 관련 소요 비용	영양제, 보약	45(17.3)	35(15.1)
	의복(임부복 등)	32(12.4)	40(17.3)
	태교관련(용품, 교육 등)	26(10.0)	15(6.5)
	출산준비물	35(13.5)	48(20.8)
	건강·운동 프로그램	8(3.1)	1(0.4)
	음식(영양, 외식 등)	40(15.4)	28(12.1)
	임신관련 의료비(검사포함)	69(26.6)	63(27.3)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비	2(0.8)	1(0.4)
	기타	2(0.8)	0(0.0)
소요 비용	총액 평균(만원)	73.2	114.9

집단들(평균 106.4만원~111.9만원)보다 높게 나왔다($F=2.93^*$). 그리고 초산인 경우가 경산인 경우보다 높게 나와 임부의 경우는 첫 아이인 경우가 88.5만원, 둘째 이후인 경우가 59.4만원($t=3.17^{**}$), 산모인 경우는 초산모가 147.0만원, 경산모가 88.7만원($t=5.51^*$)이었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인 경우(91.7만원)가 그 이상(전문대졸·대중퇴:130.2만원, 대졸:125.5만원)인 집단에 비해 크게 낮게 나왔다($F=5.10^{**}$). 이를 통해 첫 임신이나 초산인 경우가 그 이후의 경우보다 임신관련 비용이나 출산준비 비용이 평균 30만원~60만원정도가 더 소요됨을 알

수 있다.

3. 출산 관련 여건 현황

1) 분만 경험

(1) 분만 방식

임부집단인 경우는 계획하는 분만형태중 자연분만이 거의 대부분(89.6%)을 차지하고 제왕절개는 아주 소수(6.8%)에 불과하나, 산모집단이 실제로 경험한 분만형태는 자연분만이 58.2%에 불과하고 제왕절개가 39.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8). 이는 임신기간중의 희망이나 계획과 달리 실제 출

표 8. 분만 방식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출산시 이용한(할) 분만 방식	자연분만	223(89.6)	146(58.2)
	제왕절개	17(6.8)	99(39.4)
	유도분만	2(0.8)	6(2.4)
	특별히 선호하는 방식 없음	5(2.0)	0(0.0)
	기타	2(0.8)	0(0.0)
자연분만인 경우, 시도해 본(할) 분만 방식	일반 자연분만	98(41.5)	141(90.4)
	가족분만	57(24.1)	11(7.1)
	그네분만	22(9.3)	1(0.6)
	수중분만	40(16.9)	0(0.0)
	잘 모르겠다.	17(7.2)	0(0.0)
기타	2(0.8)	3(1.9)	
이 분만 방식에 대한 만족 여부	예		176(72.4)
	아니오		67(27.6)

표 9.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는 인물

문항 요지		임부	산모
		빈도(%)	빈도(%)
분만실 입실 동반자	혼자 들어감	98(41.0)	160(66.7)
	남편	136(56.9)	73(30.4)
	친정모	4(1.7)	2(0.8)
	기타	1(0.4)	5(2.1)

산시에는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높은 제왕절개율은 특히 사회적 관심과 계도를 요하는 부분이다.

자연분만의 여러 형태 중 어느 것을 택하는가에 대해서는, 임부는 일반 자연분만 (41.5%), 가족분만 (24.1%), 수중분만 (16.9%), 그네분만 (9.3%) 등의 순으로 분만계획을 보고한데 비해, 산모는 실제 경험을 일반 자연분만 (90.4%), 가족분만 (7.1%), 그네분만 (0.6%) 등으로 보고하고 있어, 분만 형태에 있어서의 기대와 실제간에 차이가 큼을 볼 수 있다. 안전과 위생이 보장되고 가족공통의 경험과 긍정적 유대의 증진에 기여하는 한, 분만의 경험이 보다 특별하고 다양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험한 분만형태에 대체로는 만족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27.6%에 달했다.

(2) 분만 전후 경험

분만실에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가에 대해 임부는 남편(56.9%)이라는 응답을, 산모는 혼자(66.7%)라는 답을 가장 많이 보여 임신중일 때와 실제 출산시의 차이를 보여준다(표9). 그러나 분만의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은 부모에게나 신생아에게 소중한고 의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남편들의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계몽과 교육이 필요함은 물론, 직장에서의 배려와 병원측의 허용·권장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만 순간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한 사람으로는 남편(임부 4.5점, 산모 4.6점)이 단연 으뜸이었고, 그 다음은 친정어머니·친정식구, 시어머니·시댁 식구, 친구·이웃의 순으로 나왔다(표10). 임부의 경우 남편이나(t=2.78^{**})이나 친정 식구(t=2.34^{*})에 대한 의존은 첫 임신인 경우가 경력자보다 높았다.

분만후 1시간 이내에 아기를 안아본 경우는 47.6%에 불과했고, 같은 병실에 아기와 함께 있지 못한 경우도 58.9%나 되어 절반 이상의 어머니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1). 출생직후 신생아의 안정이나 어머니의 긍정적인 모성체험에 기여하는 이같은 분만후 관행의 확산을 위해서는 임산부 자신의 보다 적극적인 요구는 물론 그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병원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분만실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로 대부분의 산모가 병원의 조치(72.1%)를 든 것은 병원측의 능동적인 변화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분만직후 아기를 안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임부와 산모 모두 4.5점으로 거의

표 10.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도

인물	중요도 ¹⁾	임부	산모
		평균	평균
남편		4.5	4.6
친정어머니 또는 친정식구		3.5	3.5
시어머니 또는 시댁식구		2.9	2.8
친구 또는 이웃		2.4	2.3

1) 5점 척도였음(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아주 중요하다)

표 11. 분만직후 아기와와의 경험

문항요지	빈도(%)	산모
분만 후 1시간 이내에 아기를 안아본 경험	예	118(47.6)
	아니오	130(52.4)
병실에 아기와 함께 있었음	예	102(41.1)
	아니오	146(58.9)
아기와 같은 병실에 있었던 이유	병원의 조치	88(72.1)
	내가 원해서	32(26.2)
	기타	2(1.6)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표12), 이러한 인식은 첫 임신인 경우가 경력자에 비해 높았다($t=3.17^{**}$). 분만직후 어머니의 젖을 빨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임부와 산모 모두 4.4점으로, 역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병실에 아기와 함께 있는 것 역시 임부와 산모가 모두 4.3점으로 대부분의 임신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표12)에 비해 실제(표11)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부분적으로는 출산전후 여성들의 기대나 생각과 실제(요구, 노력)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일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병원측의 권위주의적 또는 편의주의적 관행 탓일수도 있어, 계몽과 선도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12. 분만직후 아기와의 경험의 중요성

분만직후 행동	중요도 ¹⁾	임부	산모
		평균	평균
아기안아보는 것		4.5	4.5
엄마 젖 물리는 것		4.4	4.4
같은 병실 사용하는 것		4.3	4.3

1) 5점 척도였음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아주 중요하다)

2) 출산관련 사항

(1) 출산 비용

출산비용은 임부의 예상비용 평균이 31.9만원, 산모의 실제 비용 평균이 43.8만원이었다. 임부와 산모의 경우 모두 45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임부

:37.1%, 산모: 47.8%), 그 다음이, 임부의 경우는 25~35만원(28.6%), 35~45만원(25.3%)이었는데 비해 산모의 경우는 35~45만원(22.7%), 25~35만원(20.3%) 순이었다(표13). 이는 실제 출산비용이 임신기간 중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임을 반영한다. 출산 비용의 부담은 부부 부담(임부:93.0%, 산모:82.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모부담, 부모 보조, 정부 보조의 순으로 나왔다.

(2) 출산시 이용 의료기관

임부와 산모 모두에서 출산시 이용 의료기관은 종합형 개인병원(임부:42.3%, 산모:47.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개인의원, 대학병원의 순으로 나왔다(표14). 이는 여성들이 출산을 위해서는 개인 병원보다는 중·대형 병원을 선호함을 확인시켜준다. 시설 이용 만족도는 대다수가 만족한다(88.7%)는 반응을 보였고, 평균 체류기간은 4.3일 이었다.

의료기관 선택시 중시하는 조건은 임부집단과 산모집단간에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임부의 경우는 신설여부(38.4%)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규모(23.1%), 평판(17.1%), 교통·주차 편의(11.5%), 의사수(8.2%)등의 순으로 나와, 보다 외형적, 구조적인 조건들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산모의 경우는 친절(19.5%)을 가장 중시했고, 평판(18.6%), 청결·위생(15.9%), 지명도(12.8%)등, 서비스 내용의 질적 측면들을 더 중요시 하였다. 규모와 교통·주차편의, 신설여부, 의사수, 특별서비스, 대기시간 등은 비교적 덜 중요하거나 거의 고려되

표 13. 출산비용과 부담자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출산 비용	15만원미만	2(0.8)	4(1.6)
	15~25만원	20(8.2)	19(7.6)
	25~35만원	70(28.6)	51(20.3)
	35~45만원	62(25.3)	57(22.7)
	45만원이상	91(37.1)	120(47.8)
출산 비용의 부담자	부부부담	225(93.7)	197(82.8)
	부모부담	9(3.7)	234(10.0)
	부모보조	6(2.5)	14(5.9)
	정부보조	0(0.0)	14(5.9)
	기타	0(0.0)	3(1.3)

표 14. 출산시 이용 의료기관의 유형과 선택기준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출산시 이용한 의료기관	대학병원	54(21.9)	40(16)
	종합형 개인병원	104(42.3)	119(47.6)
	개인의원	86(35.0)	91(36)
	보건소	1(0.4)	0(0.0)
	조산원	1(0.4)	0(0.0)
	집	0(0.0)	0(0.0)
	기타	0(0.0)	0(0.0)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여부	예		219(88.7)
	아니오		28(11.3)
출산을 위한 의료기관 선택의 조건(택3)	규모	104(23.1)	44(6.1)
	의사 수	37(8.2)	15(2.0)
	친절	8(1.8)	140(19.5)
	평판	77(17.1)	133(18.6)
	신설여부	173(38.4)	23(3.2)
	교통 및 주차 편의	52(11.5)	37(5.1)
	지명도(유명한 정도)	0(0.0)	92(12.8)
	집과의 거리	0(0.0)	84(11.7)
	청결, 위생상태	0(0.0)	114(15.9)
	직장과의 거리	0(0.0)	6(0.8)
	대기하는 시간	0(0.0)	8(1.1)
	특별 서비스 (마사지, 부모교육, 필요물품제공 등)	0(0.0)	11(1.5)
	기타	0(0.0)	10(1.4)

지 않았다. 이는 출산의 경험이 병원 선택기준의 우선순위를 보다 본질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옮겨가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기타 출산관련 걱정과 도움

출산시의 주된 걱정거리는 주로 아기의 건강상태(임부:38.4%, 산모:40.1%)와 임신부 자신의 신체적 고통(임부:23.1%, 산모:22.2%)이었다(표18). 이러한 결과는 태아의 발달과정과 건강한 태내발달을 위한 필수요건들에 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지식 제공과 아울러 임부의 건강유지와 순조로운 출산을 위한 노력과 준비를 돕는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 다음은 산모의 건강상태와 산후조리, 큰 아이 보살핌 등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가족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지원과 배려로 경감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큰 아이가 있는 경우 돌봐주는 사람은 단연 친정부모였고, 그 다음이 시부모(임부:24.4%, 산모:22.5%)와 남편(임부:18.5%, 산모:23.2%), 형제자매였다. 아기돌봄이와 이웃 활

용도는 극히 낮았다. 이는 우리의 현실에서 출산과 관련된 여성과 아동 및 가족의 복지는 아직도 거의 가족, 특히 여성과 딸가진 부모들의 손에 의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 내의 보육시설과 충분한 직장탁아시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활성화 등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출산시에 받는 도움의 내용으로는, 산모 보살핌(임부:58.3%, 산모:59.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신적 위안·격려·지원(23.5%, 21.0%)과 다른 자녀 돌보기(14.5%, 11.9%)였다. 주로 도와준 사람은 역시 친정어머니(임부:57.8%, 산모:44.5%)였고, 그 다음은 남편(임부:28.6%, 산모:34.6%)이었으며, 시어머니와 형제자매의 조력은 비교적 낮았다(표생략). 이는 정신적 지원과 양육관련 도움에 있어서 산모가 된 후 실제로 받는 도움이 임부시의 기대에 비해 적은 경향이 있음을 반영해 주며, 또한 친정어머니의 도움에 대한 지각은 임신기간에 더 높고 남편의 도움에 대한 지각은 출산 후에 더 높음을 보여준다.

4. 산후조리 관련 여건 현황

1) 산후조리 장소와 도움받기

출산후 주로 머무르는 장소는 본인 집(임부:43.0%, 산모:45.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친정이었으며, 산후조리원(임부:15.2%, 산모:18.4%)을 시댁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획보다 실제로는 산후조리원이나 본인 집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평균 산후조리기간은 25일 내외로 나왔다(표15).

출산후 주로 도와준 사람은 친정어머니(임부:60.2%, 산모:56.9%)였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도움은 그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었다(표16). 산모도우미를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10% 내외에 달했다. 도움의 내용은 주로 산모 뒷바라지(임부:36.2%,

산모:42.4%)와 신생아 돌보기(임부:43.7%, 산모:38.6%)였는데, 임부는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도움을 더 기대했고, 산모는 산모 뒷바라지에 대한 도움을 실제로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의 출산과 산후조리 및 아기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이 친정어머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산후조리 관련 비용 중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은 영양제·보약·식품과 정기검진관련 의료비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임부의 예상비용보다 산모의 실제 비용이 더 높음), 아기 돌보는 이 사례비가 그 다음이었다(표17). 산후조리 관련 비용의 평균 액수는 임부가 82.3만원, 산모가 69.6만원을 보고하여 임부의 예상액보다 실제비용이 약 13만원정도 낮게 나왔다($t=-2.63^{**}$). 이는 출산비용의 경우, 실제 비용이 임부집단의 예상비용보다 높게 나온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산후조리 비용은 소득이 높을수록(소득집단구분은 표1 참조) 증가(60.2만원, 74.9만원, 74.9만원, 102.1만원, $F=4.07^{**}$)하였으며, 취업모(60.4만원)보다 비취업모(92.3만원)의 경우가 훨씬 높게($t=4.92^{****}$), 그리고 초산(88.6만원)이 경산(74.1만원)보다 높게($t=2.02^*$) 나왔다. 초산의 산후조리 비용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산후조리 비용이 훨씬

표 15. 산후조리 장소와 기간

		빈도(%)	
	산후조리 장소와 기간	임부	산모
장소	본인의 집	105(43)	108(45.3)
	친정	88(36.1)	72(30.2)
	시댁	14(5.7)	13(5.4)
	산후조리원	37(15.2)	44(18.4)
	기타	0(0.0)	1(0.4)
기간	평균 조리일 수(일)	26.2	24.6

표 16. 산후조리시의 도움 내용과 주로 도움주는 인물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도움내용	신생아 돌보기	157(43.7)	141(38.6)
	산모 뒷바라지	130(36.2)	155(42.4)
	정신적 위안, 격려, 지원	31(8.6)	27(7.4)
	비용지원	1(0.3)	3(0.8)
	산모 가족 돌보기 (큰아이)	23(6.4)	25(6.8)
	집안일 대리	16(4.5)	14(3.8)
	기타	1(0.3)	0(0.0)
도와주는인물	남편	30(15.3)	26(13.9)
	친정어머니	118(60.2)	106(56.9)
	시어머니	17(8.7)	27(14.5)
	산모 도우미	25(12.8)	16(8.6)
	형제·자매	6(3.1)	7(3.7)
	친척	0(0.0)	2(1.0)
	기타	0(0.0)	2(1.0)

표 17. 산후조리 비용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빈도(%)	빈도(%)
산후조리 관련비용	의료비(정기검진)	131(30.7)	115(33.9)
	아기 돌봐주신 분 사례비	95(22.2)	91(19.9)
	의료비(출산후유증)	39(9.1)	26(5.6)
	운동프로그램	12(2.8)	8(1.7)
	영양제, 보약 및 산후조리식품	145(34.0)	176(38.5)
	기타	5(1.2)	1(0.2)
소요 비용 총액	평균(만원)	82.3	69.6

많이 드는 것은 다소 의외였는데, 가능한 설명은 비취업모 집단이 취업모에 비해 산후조리 기간이 길 수 있고,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비용을 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산후조리 도우미와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은 이용할 계획이 없거나(임부:34.5%) 이용하지 않은(산모:56.2%)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용시 선택의 조건으로는, 병원선택시와는 달리, 청결·위생상태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친절이었다. 그 외의 고려 사항들에는 평판, 전문 인원 수, 내부구조와 시설의 편리함 등이 포함되었고, 비용은 중요하지 않았다(표19)

산후조리원의 선택 경로는 친구·이웃(임부:37.9%, 산모:26.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병원, 가족의 순이었다. 이용만족도는 '괜찮았다'가

표 18. 산후조리원 이용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빈도(%)	빈도(%)
산후조리원 선택의 조건 (택3)	이용하지 않을 생각	142(34.5)	188(56.2)
	규모	4(1.0)	7(2.1)
	전문인력의 수	24(5.8)	18(5.4)
	평판	28(6.8)	15(4.5)
	친절	50(12.2)	18(5.4)
	신설여부	18(4.4)	10(3.0)
	교통 및 주차 편의	7(1.7)	9(2.7)
	지명도	15(3.6)	4(1.2)
	집과 직장과의 거리	15(3.6)	10(2.9)
	청결, 위생상태	62(15.1)	26(7.8)
	특별 서비스(마사지, 체조, 물품 제공 등)	13(3.2)	11(3.3)
	실내구조와 시설의 편리함	27(6.6)	13(3.9)
	비용	5(1.2)	1(0.3)
기타	1(0.2)	4(1.2)	
산후조리원 이용 경로	병원	33(25)	15(26.8)
	가족	23(17.4)	12(21.4)
	친구나 이웃	50(37.9)	15(26.8)
	생활정보지	5(3.8)	2(3.6)
	인터넷	7(5.3)	1(1.8)
	매스컴, 광고	8(6.1)	6(10.7)
기타	6(4.5)	5(8.9)	
산후조리원 만족도	별로 만족하지 못함		3(5.9)
	괜찮았음		36(70.6)
	매우 만족했음		12(23.5)

70.6%, '매우 만족했다'가 23.5%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었고, 만족도는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높게 나왔다($t=-2.16$).

5. 양육 관련 여건 현황

1) 양육자, 양육장소, 양육시간

산후조리 후 양육은 주로 누가, 어디에서, 주일에 몇 일을, 하루 평균 몇 시간동안 하는가 하는 문항들에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들은 임부, 산모에 관계없이 아기를 본인이, 본인집에서 주 7일을 하루 24시간동안 돌본다고 답하였다. 주중에는 친정식구나 시댁 식구, 또는 도우미가 조금 돌봐주고, 주말에는 남편이 조금 돌봐주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거의 80%이상의 임산부가 본인이 양육을 한다고 응답하였다(표19). 하루 24시간 양육하는 경우

역시 주중에는 80%를, 주말에는 88%를 웃도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조건들과 관계없이 대체로 양육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그리고 임산부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다.

유사시 대리양육자는 역시 친정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시부모, 형제·자매 순이었다. 유사시에조차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경우도 15%정도나 되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20). 임부에 비해 산모집단이 시부모의 도움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은 흥미로운 변화이다.

2) 보육시설

현재 거주지역이나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은, '없다'와 '잘모르겠다'가 합쳐서 절반 정도였고, 어린이집 이용자가 전체의 1/3정도, 놀이방 이용자가 9~10명에 1명꼴이었으며, 영아전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

표 19. 주중과 주말의 주 양육자, 양육장소, 양육시간 빈도(%)

문항 요지		주중		주말	
		임부	산모	임부	산모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누가	본인	185(75.8)	180(80.7)	187(81.7)	170(83.3)
	배우자	3(1.2)	1(0.4)	21(9.2)	20(9.8)
	친정식구	23(9.4)	16(7.0)	11(4.8)	7(3.4)
	시댁식구	24(9.8)	19(8.3)	9(3.9)	5(2.5)
	도우미	6(2.5)	5(2.2)	1(0.4)	0(0.0)
	어린이집(놀이방)	3(1.2)	2(0.9)	0(0.0)	0(0.0)
	기타	0(0.0)	1(0.4)	0(0.0)	2(1.0)
어디서	본인집	207(83.1)	203(85.6)	222(90.2)	217(93.5)
	친정	18(7.2)	15(6.3)	10(4.1)	8(3.5)
	시댁	17(6.8)	12(5.1)	12(4.9)	7(3.0)
	도우미집	5(2)	4(1.7)	0(0.0)	0(0.0)
	어린이집(놀이방)	1(0.4)	3(1.3)	2(0.8)	0(0.0)
	기타	0(0.0)	0(0.0)	0(0.0)	0(0.0)
몇 일	주 1일	2(0.8)	1(0.4)	22(9.5)	20(8.6)
	주 2일	2(0.8)	3(1.3)	210(90.5)	212(91.4)
	주 3일	4(1.7)	4(1.7)		
	주 4일	7(3.0)	3(1.3)		
	주 5일	220(93.6)	226(95.4)		
	하루평균 얼마동안	근무시간(9:00~18:00)	40(16.5)	23(11.9)	8(3.4)
저녁시간(6:00~22:00)		5(2.1)	3(1.2)	14(5.9)	11(4.6)
잠잘 때 (22:00~)		0(0.0)	1(0.4)	3(1.3)	4(1.7)
24시간		195(80.6)	207(85.2)	210(88.2)	212(88.7)
기타		2(0.8)	3(1.2)	3(1.3)	4(1.7)

표 20. 유사시 대리양육자

유사시 대리 양육자	빈도(%)	
	임부	산모
없다	39(14.4)	38(14.7)
시부모	54(19.9)	59(22.9)
친정부모	129(47.6)	103(39.9)
형제·자매	33(12.2)	25(9.7)
이웃	9(3.3)	16(6.2)
친구	4(1.5)	6(2.3)
사설	2(0.7)	3(1.2)
아기 돌봄이	1(0.4)	3(1.2)
기타	0(0.0)	5(1.9)

우는 3%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표21). 이는 보육시설, 특히 직장보육시설과 영아전담시설의 절대부족과, 보육시설 이용관련 기본정보와 안내 부족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21. 거주지역/직장내 보육시설

보육시설 유무·종류	빈도(%)	
	임부	산모
영아전담시설	5(2.3)	5(2.3)
어린이집	78(35.4)	65(30.2)
직장보육시설	2(0.9)	2(0.9)
놀이방	26(11.8)	24(11.2)
기타	2(0.9)	3(1.4)
없다	38(17.3)	37(17.2)
잘 모르겠다.	69(31.4)	79(36.7)

표 22. 수유방식

문항 요지	빈도(%)	
	임부	산모
수유방식	모유수유	231(92.4)
	분유수유	19(7.6)
원하는 방법을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	직장생활 때문에	33(23.6)
	산모와 아기의 건강 때문에	12(8.6)
	비용이 부담되어서	0(0.0)
	아기가 싫어해서	12(8.6)
	모유양이 부족해서	71(50.7)
	기타	12(8.6)

3) 수유와 이유

(1) 수유방식

모유수유와 분유수유 중 심정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모유수유(임부:92.4%, 산모:94.0%)이다. 그러나 원하는 수유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산모 경우)에는 '양이 부족해서'(50.7%)가 과반수였고, '직장생활 때문에'(23.6%), '산모·아기 건강 때문에'(8.6%), '아기가 싫어해서'(8.6%) 등이 포함되었다(표22). 직장생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심리적 선호와 실천간의 이러한 큰 차이는 모유 수유에 대한 여성 자신들의 기피 심리 내지는 양가감정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2) 수유기간

모유수유는 임부의 경우 생후 평균 7.8개월까지, 산모의 경우는 생후 평균 6.3개월까지로 잡고 있었다. 분유수유의 경우 임부는 생후 평균 4.7개월~18.4개월까지, 산모는 생후 평균 3.1개월~16.2개월까지로 잡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유와 분유의 수유 종료시기를 임부가 산모보다 늦게 잡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이는 곧 임부가 가진 정보와 계획이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보 획득과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교육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취업모(모유:6.7개월, 분유:5.1개월)가 비취업모(모유:4.3개월, 분유:3.9개월)보다 모유수유와 분유수유를 둘 다 더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들이 시간에 쫓기는 가운데서 이유식 준비보다는 편리한 수유에 보다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졸 어머니가 모유수유를 가장 늦게까지, 그리고 전

표 23. 이유시기와 제공방식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이유 시작 시기	시작 월령	<7.4>	<6.5>
이유식 제공방식	곡류, 미음, 죽, 먹기 쉬운 일반식 순으로 제공	81(35.5)	88(40.0)
	이유식 제품을 단계적으로 제공	63(27.6)	76(34.6)
	영양과 발달에 맞게 만들어 먹임	84(36.8)	56(25.4)

문대졸·대학 중퇴집단이 가장 짧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F=3.11'), 이는 전문대졸·대학중퇴 집단 여성들이 고졸이나 대졸 집단에 비해 어딘가 조금다른 면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3) 이유

임부집단이 생각하는 이유 시작시기는 생후 평균 7.4개월로, 산모집단의 6.5개월보다 역시 한 달 정도가 늦다(표23). 이유식 제공 과정은 임부와 산모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임부집단은 영양과 발달에 맞게 만들어 먹이는 것을, 산모 집단은 일반 식사의 점진적 소개와 이유식 제품 이용을 선호하였다(표23). 이는 임신기의 이론적, 이상적 이유방식이 출산후에는 보다 현실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상당부분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아기와와의 상호작용

아기가 깨어있는 동안 함께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3~4시간이었다(표24). 이 시간동안 주로 하는 것은 안아주기,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등이었고, 바라보고 눈 맞추기, 재우기, 말걸기·노래 불러주기 등도 어느정도 나왔다. 산모가 실제로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한 행동은 안아주기, 먹이기, 기저귀 갈아주기, 재우기 등의 실질적인 보살핌 행동인데 반해, 임부가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행동은 눈 맞추기, 말걸기·노래불러주기, 씻기기, 운동시키기, 놀아주기 등으로서, 여기서도 역시 임부가 산모보다 양육에 대해 이상적인 기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신기간 동안 신생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적 기대를 심어주는 사전교육과 준비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표 24. 아기와와의 상호작용 시간과 내용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깨어있는 동안 함께 상호작용하는 시간	1~2시간	15(6.0)	10(4.1)
	3~4시간	46(18.3)	45(18.4)
	5~6시간	34(13.5)	39(16.0)
	7~8시간	34(13.5)	39(16.0)
	8시간 이상	122(48.6)	111(45.5)
	주로 하는 것 (택5)	먹이기	2(0.2)
기저귀 갈아주기		166(16.5)	162(16.6)
안아주기		146(14.6)	180(18.5)
재워주기		168(16.7)	104(10.7)
운동시키기		93(9.3)	42(4.3)
바라보고 눈맞추기		63(6.3)	105(10.8)
말·노래해주기		115(11.5)	80(8.2)
놀아주기		97(9.7)	69(7.1)
씻기기		78(7.8)	54(5.5)
기타		75(7.5)	0(0.0)

표 25. 양육비용

문항 요지		비도(%)	
		임부 평균	산모 평균
평균 양육비용(만원)	간식	4.7	4.2
	기저귀	6.3	5.7
	분유	7.3	6.8
	이유식	4.8	4.4
	병원	6.3	6.6
	옷	5.4	5.6
	아기 돌보는 이	35.3	41.5
	시설이용료	16.0	20.7
양육비용 부담자	부부부담	236(96.7)	226(97.0)
	부모부담	6(2.5)	5(2.1)
	부모보조	2(0.8)	2(0.9)
	정부보조	0(0.0)	0(0.0)
	기타	0(0.0)	0(0.0)

5) 양육의 비용과 도움받기

신생아기 양육비용 중에서는 아기 돌보는 이 사례(임부:35.3만원, 산모:41.5만원)와 보육·탁아 시설 이용료(임부:16.0만원, 산모:20.7만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 부분은 임부의 예상이 산모의 실제비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25). 양육비용은 산모인 어머니가 고졸인 경우(25.0만원)보다 대졸이상인 경우(57.5만원)가, 그리고 대졸인 경우보다 오히려 전문대졸·대학중퇴인 경우(99.0만원)가 더 높게 나왔다(F=22.92). 양육비용은 97%정도를 부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지원을 위한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양육하는 데 필요한 도움의 내용은 신생아 돌봐주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산모 돌봐주기, 심리정서적 지원, 가사노동분담, 다른 가족(큰애, 노부모) 돌보기, 양육관련 정보제공, 양육비 분담의

순으로 나왔으며, 전체적으로 임부집단이 산모집단보다 도움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표26). 특히, 다른 가족 돌보기는 임부(t=-4.1***), 산모(t=-5.3***), 모두에서 초산보다 경산부가 훨씬 더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둘째나 셋째 자녀 출산 시의 큰아이(들) 보살핌이 무척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상과 달리,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가사노동 분담(t=-3.88**), 신생아 돌봐주기(t=-2.74**), 심리정서적 지원(t=-2.65**), 양육관련 정보제공(t=-2.65**), 산모 돌봐주기(t=-2.51) 등에서 도움이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전업모의 역할이 결코 취업모에 비해 단순하거나 수월하지 않고, 나름대로 무척 복잡하고 버거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양육비 분담의 현실을 보면, 소

표 26. 양육시 지원의 내용

도움 내용	임부	산모	t값
양육비 분담	2.61	2.4	
가사 노동 분담	3.1	2.7	4.29****
산모 돌봐주기	3.2	2.8	3.56***
신생아 돌봐주기	3.3	3.0	3.26**
다른 가족 돌봐주기(큰아이, 노부모)	2.9	2.6	2.03*
심리적, 정서적 지원	3.0	2.8	2.30*
양육관련 정보 제공	2.9	2.5	3.71***

1) 4점 척도였음(1: 필요없다, 2: 조금 받는다, 3: 보통이다, 4: 많이 받는다)

득 150만원 이하 집단이 분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즉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3.00 점), 그 다음이 150-250만원 집단(2.6점)과 350만원 이상 집단(2.6점)이었다. 특히하게도 250-350만원 집단이 35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양육비 분담을 적게(즉, 도움을 가장 적게)(1.9점) 받고 있어(F=4.92^{**}) 주의를 끈다.

6. 남편의 태도와 휴직 관련 여건 현황

1) 남편의 태도 및 참여도

(1) 가족계획 및 태교에 대한 태도

거의 대부분의 남편들은(임부:95.2%, 산모:92.3%) 가족계획에 관심을 갖고 태교에 참여를 하는 편이었고, 원하는 자녀 수는 평균 1.6~1.7명으로 아들과 딸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표27). 태교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별 도움을 주지는 않음'(임부:47.6%, 산모:55.5%)이 과반수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직접 참여함'(임부:51.2%, 산모:42.9%)이 그 다음으로 나와, 거의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임부(F=5.51^{**})와 산모(F=3.87^{*}) 모두 학력이 대졸인 경우가 전문대졸·대학중퇴 집단보다 남편의 태교 인식이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비취업모 집단이 취업모 집단보다 남편의 태교 필요성 인식 점수가 높았다(t=-3.21^{**}).

(2) 임신·출산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태도

임신 중 정기검진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함께 가고 싶어하나 근무시간 때문에 가지 못한다'(임부:43.8%, 산모:50.5%)와 '어떻게든 함께 가려고 노력한다'(임부:45.8%, 산모:41.5%)가 비슷하게 높게 나왔다(표27). 이러한 남편의 태도는 산모 본인(F=3.69^{*})과 남편(F=3.18^{*})이 고졸인 경우가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낮게 나왔으며, 대졸인 임부(t=3.48^{*})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높게, 그리고 첫 임신인 임부가 경력자에 비해 높게 나왔다.

분만 과정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임부의 경우는 '출산·분만 전체과정을 위해 휴가를 내는 경우'(42.1%)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분만시 분만과정에 참여하는 경우'(30.0%)였으며, 산모의 경우는 '병원에는 함께 가준다'(40.0%)가 가장 많이 나왔다. 분만에 대한 남편의 태도 점수는 임부가 산모

표 27. 임신·출산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남편의 태도 빈(%)

문항 요지		임부	산모
정기검진에 대한 태도	언제가 검진일인지 모름	11(4.4)	9(3.7)
	관심은 있으나, 함께 가기는 꺼림	15(6.0)	12(4.9)
	가고 싶어하나 근무시간 때문에 어려움	109(43.8)	123(50.0)
	최대한 함께 가려고 노력함	114(45.8)	102(41.5)
분만과정에 대한 태도	분만·출산은 여자 일이라고 생각	5(2.0)	4(1.7)
	분만시 병원에는 함께 감	64(25.9)	96(40.0)
	분만과정에 함께 참여	74(30.0)	72(30.0)
	전체과정에 함께하기 위해 휴가냄	104(42.1)	68(28.3)
출산용품 준비에 대한 태도	관심이 없거나 미리 살 것 없다고 말함	5(2.0)	6(2.4)
	이해는 하나 도움을 주지는 않음	24(9.6)	28(11.3)
	출산용품 준비과정을 도와줌.	136(54.4)	138(55.9)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준비함	85(34.0)	75(30.4)
산후조리에 대한 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산모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함	7(2.8)	5(2.1)
	직접 도움 주지는 않지만 산후 조리 시설 이용 비용 조달	26(10.4)	21(8.7)
	직접 도움 주지는 않지만 집안/친지의 도움을 얻어줌	100(40.1)	99(41.1)
	최대한의 역할분담으로 도움	116(46.6)	116(48.1)

표 28. 수유방식에 대한 남편의 태도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선호 수유 방식	모유	199(80.9)	192(77.7)
	분유	10(4.1)	10(4.1)
	상관없다.	37(15.0)	45(18.2)
수유방식에 대한 주장	자기주장을 고집	14(5.9)	4(1.6)
	노력해 보기를 기대	97(41.1)	91(36.8)
	희망사항 있으나 강하게 표현 없음	89(37.7)	101(40.9)
	자기 견해가 뚜렷이 없음	36(15.2)	51(23.7)

보다($t=3.48^{***}$), 그리고 역시 임부 중 초산부가 경산부 보다($t=3.05^{**}$), 소득이 월 350만원 이상인 집단이 다른 소득집단보다($F=3.44^*$), 그리고 남편이 대졸 학력인 집단이 다른 학력집단보다($F=5.46^{**}$) 높게 나왔다.

출산용품 준비시의 남편의 태도는 '준비과정을 도와줌'이 절반 이상이었고, 남편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준비함'도 상당히 되어 이들이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략 9-10명에 한명은 '이해는 하나 도움은 주지는 않음'으로 응답하였다. 출산준비에 대한 남편의 이러한 태도는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F=3.76^*$), 첫임신인 임부가 경력자인 경우보다($t=4.24^{****}$), 특별히 소득이 250~350만원인 집단이 그 외의 집단보다($F=3.25^*$) 긍정적으로 나왔다.

산후조리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최대한의 역할 분담으로 도움'이 가장 많았으나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었다(임부:46.6%, 산모:48.1%). 그 다음으로 직접 돕지는 않지만 도움을 얻어주는 경우가 많았으며(임부:40.1%, 산모:41.1%), 일부는 산후조리시설 비용을 조달하는 정도에 머물렀다(임부:13.3%, 산모:10.8%). 남편의 이러한 태도점수 역시 첫임신인 임부가 경산인 경우보다 높게 나왔고($t=2.33^*$), 전문대졸·대학중퇴 집단의 경우가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낮게($F=3.17^*$) 나왔다. 특히 전문대졸·대학중퇴 집단의 이러한 보고는 이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수유기간이 짧게 나온 것($F=3.22^*$)이라든가, 신생아기 양육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온 것과 더불어 이 집단의 독특한 부부 역동과 내적 특성이 표출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수유방식에 대한 태도

남편들은 대다수가 모유수유를 선호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자기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노력해보기를 기대'하거나 희망사항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정도이나, 고집과 기대는 산모보다 임부의 남편에서 더 많이 감지되었다(표28).

(4) 비용에 대한 태도 및 전반적 참여도

임신, 출산, 산후조리의 각 과정에 관련된 비용 전체를 볼때, 남편의 태도는 '필요한 것은 쓰도록 한다'(임부: 61.8~67.3%, 산모: 69.6~71.4%))가 대다수였고, '항상 여유를 주고 넉넉히 쓰도록 한다'도 약 4 이상이 되어 대체로 긍정적이고 지원적일 것으로 나타났다(표29).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출시 신경이 쓰이게 한다거나 비용지출을 억제하는 경우는 5% 내외에 불과했다. 첫임신일수록($P<.01\sim P<.001$),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유의한 모든 문항에서 $P<.0001$), 임부의 학력이 높을수록($P<.05\sim P<.0001$), 소득이 높을수록($P<.05\sim P<.01$), 그리고 비취업모에게서($P<.05$) 높게 나왔다.

전반적 과정에 대한 남편의 참여도는 '높은 편이다'와 '매우 높다'가 60% 내외이고 '보통이다'가 35% 내외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러한 참여도는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F=6.34^{**}$), 그리고 첫임신인 경우가 경력자에 비해($t=4.61^{****}$) 높았고, 산모가 고졸이하인 경우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낮았다($F=5.65^{**}$).

(5) 참여 촉발요인

남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준 요인으로는, '남편

표 29. 남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빈도(%)

남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요인	참여도 ¹⁾	
	임부	산모
남편의 자발적 의지	3.8	3.7
부인의 요구	3.4	3.5
가족과 친지의 압력	2.7	2.5
근무시간/업무용통성	2.7	2.7
사회·문화적 기대	2.6	2.5

1) 5점 척도였음(1: 매우 낮다 ~5: 매우 높다).

의 자발적인 의지'가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고(임부:3.8, 산모:3.7), 그 다음은 '부인의 요구'(임부:3.4, 산모 3.5)였는데, 이 두 결과의 수치들은 임신 중과 출산 후의 미묘한 부부 역동의 변화를 반영해준다. 그 다음은 '근무시간·업무용통성', '가족·친지의 압력', '사회문화적 기대'의 순으로 나왔다(표29). 첫 임신일수록 남편의 '자발적 참여', 부인의 요구, 주위의 압력이 모두 더 높았다. 고졸이하인 어머니 집단이 고학력 집단에 비해 남편의 자발적 의지 점수가 크게 낮았고($F=9.34^{***}$), 대졸이상인 산모집단이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사회문화적 기대요인'이 높게 나왔다($F=3.55^*$). 남편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집단 역시 고학력집단에 비해 남편의 자발적의지가 낮게 나왔다($F=7.55^{***}$). 취업모보다 비취업모 집단에서 근무시간·업무용통성 요인(산모집단: $t=-3.51^{***}$)과 사회문화적 기대요인(임부집단: $t=2.44^*$)들이 남편의 참여를 높여주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특히 임신과 출산과정에 대한 부부의 기대와 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루고 상호적응과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교육대

상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측면들이 고려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6) 양육 참여도와 양육행위

양육행위에 대한 참여로서 남편은 안아주기(임부:3.2, 산모:3.1)와 놀아주기(임부:3.2, 산모:3.1)를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이 목욕시키기, 울때 달래주기, 재우기, 운동시키기, 기저귀갈기 등이 있으며, 수유하기를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30). 모든 양육행위에 대한 남편의 참여 점수는 첫 임신인 임부집단이 경산부집단보다 더 높았고($P<0.05 \sim P<0.001$), 놀아주기, 안아주기, 울음 달래주기, 수유하기 등은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집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아내가 첫 임신일 때와 비취업모일 때 남편들의 참여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2) 남편의 휴가·휴직

(1) 일반휴가

출산 시 남편의 휴가를 최대한 사용하는가에 대

표 30. 남편의 양육 참여도

빈도(%)

양육 참여도	참여도 ¹⁾	
	임부	산모
수유하기	2.7	2.7
기저귀갈기	3.0	2.9
재우기	3.0	2.9
목욕시키기(씻기기)	3.0	3.0
울 때 달래주기	3.0	3.0
놀아주기	3.2	3.1
안아주기	3.2	3.1
운동시키기	3.0	2.9
말 걸기와 노래부르기	2.9	2.9
책읽어주기(이야기해주기)	2.9	2.6

1) 4점 척도였음(1: 관심없음, 2: 관심있으나 참여 많음, 3: 가끔 참여, 4: 거의 맡아서 함)

표 31. 남편의 휴가사용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휴가의 최대 사용 여부	예	154(64.4)	128(55.0)
	아니오	52(21.8)	85(63.5)
	모름	33(13.8)	20(8.5)
휴가를 사용하는 이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27(15.5)	29(20.1)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하고 싶어서	105(60.3)	90(62.5)
	가족(큰아이)을 돌봐주어야 해서	14(8.0)	15(10.4)
	어차피 쓸 수 있는 휴가니까	26(15)	7(4.9)
	기타	2(1.1)	3(2.1)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특별히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없어서	8(11.4)	14(17.3)
	직장 분위기 때문	14(17.7)	14(17.3)
	직장 업무 때문	33(41.8)	37(45.7)
	경제적 이유 때문	16(20.2)	11(13.6)
	기타	7(8.9)	5(6.2)

해서는 '예'(임부: 64.4%, 산모: 55.0%)가 과반수였으나(표39), '아니오'와 '모른다'도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 휴가 활용을 위한 정보와 사전계획 및 지원적 여건 등이 아직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휴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하기 위해서'가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출산경험에 대한 기본인식과 관심

이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라든가 '가족(큰 아이)을 돌봐야 해서' (20~30%)에 달하고 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직장에 중요업무가 있어서'가 절반가까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직장 분위기 때문'과 '특별히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없어서'였다. 직장 업무나 직장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60%나 된다는 것은 아직 직장과 사회

표 32.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남편의 직장에 육아휴직 제도 존재 여부	예	31(12.8)	19(8.2)
	아니오	126(52.1)	132(56.6)
	모름	85(35.1)	82(35.2)
있다면 기간은	평균개월수	<6.1>	<22.0>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경우 사용 여부	예	73(56.0)	10(23.3)
	아니오	57(43.8)	33(76.7)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	아내의 직장 복귀 때문	1(1.3)	0(0.0)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참여의 욕구	56(70.9)	8(66.7)
	양육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	20(25.3)	2(16.7)
	기타	2(2.5)	2(16.7)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어차피 남편이 키우기는 어려우니까	36(40.4)	12(30.8)
	직장 분위기 때문	30(33.7)	15(38.5)
	경제적 어려움 때문	22(24.7)	10(25.6)
	기타	1(1.7)	2(5.1)

의 제도와 분위기가 출산을 전후한 부부들에게 호의적이거나 지원적이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 경제적인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도 임부의 경우 20.2%, 산모의 경우 13.6%가 되었는데, 이는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경우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출산휴가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데 기인하는 것 일 수도 있다.

(2) 출산휴가

남편의 직장에 별도의 출산휴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없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는 '있다'는 응답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모른다'는 응답도 상당히 되었다. 출산휴가는 '무급휴가'가 20~30일정도, '유급휴가'가 13~14일정도인 것으로 응답을 했으며, 80% 내외가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그것이 실제로 별도의 '출산휴가'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현실과도 잘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전반적으로 출산휴가라는 것에 대한 임신부들의 이해와 정보가 크게 부족함을 읽을 수 있다. 출산 관련 휴가는 그 제도 마련 뿐 아니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확한 안내와 적극적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3) 육아휴직

육아휴직제도 역시,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고, 모른다는 경우가 35%를 넘으니, 이들을 합해보면 90% 내외의 응답자가 남편 직장의 육아휴직제의 혜택없이, 즉 남편의 별다른 도움없이 출산 후 양육을 혼자서 담당해나가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표32). 남편 직장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임부집단은 평균 6.1개월, 산모집단은 평균 22개월로 응답했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도 산모집단(예: 23.3%, 아니오: 76.7%)과 임부집단(예: 56.0%, 아니오: 43.8%)이 상반하는 응답을 보이고 있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들의 정보가 매우 부정확한 것이며, 설사 육아휴직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정작 출산후에는 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응답들은 적어도 이미 제도화되어 있고 그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는 육아휴직제도 자체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본 정보부족 또는 관심부족을 반영하는 것

이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자녀양육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서'가 %이상(임부:70.9%, 산모:66.7%)으로 절대 다수였고, 그 다음은 '사람이 없어서'였다(표32).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들의 이같은 참여욕구가 최대한 충족되고 더욱 강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달리 양육을 맡아줄 사람이 없는 부부가 자신들의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제도는 제도 자체의 확립뿐 아니라 그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지도가 병행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직장분위기 때문'과 '어차피 남편이 키우기는 어려우니까'가 대략 비슷하게 나왔으며, 전자는 산모집단에서, 후자는 임부집단에서 높게 나왔다. 이는 임신기간 중의 계획이나 기대와는 달리, 출산시 육아휴직을 택한다는 것이 직장 분위기상 생각보다 더 어려움을 반영한다. 더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도 1정도나 되고 있어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양육비 지원 현실화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7. 취업모 관련 여건

1) 출산휴가

취업여성으로서 출산시 법정 출산 휴가를 사용했는가(또는 할 것인가)에 대해 '사용했다'(또는 '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산모36.4%, 임부 58.5%에 불과했다(표33). 여기서도 출산 전후간에 응답률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와, 출산 당사자인 여성 본인도 휴가에 대한 기대나 계획과 실행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 법적 출산휴가가 없다'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또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합하면 40% 정도에 달해 취업여성의 출산여건이 실제로 매우 어려움을 보여준다.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는 월 평균 107.5만원(임부집단)~월113.6만원(산모집단) 정도였고, 이 액수는 월급의 85.9%(임부집단)~89.0%(산모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되었다. 무응답자의 경우는 이보다 낮을 수도 있으므로 이 수치들은 실제 평균보다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표 33. 취업모의 출산휴가 사용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법정 출산휴가 90일 사용 여부	직장에 출산휴가제도가 없음	15(23.0)	16(29.1)
	사용하지 못했음	11(16.9)	8(14.5)
	사용했음	38(58.5)	31(36.4)
	모름	1(1.5)	
출산휴가 기간 중 실제 급여	월평균(만원)	107.5	113.6

2) 육아휴직

법정 육아휴직기간인 1년 중 얼마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했다'(31.5%) 또는 '사용할 수 없을 듯하다'(37.3%)가 1/2 정도를 차지했고, '직장에 법적육아휴직이 없다'(임부:27.0%, 산모:35.2%)가 그 다음이었다(표34).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임부가 산모보다 높게 나온 것은, 임신 중의 다른 여러 요구들과 기대치들에서 산모보다 임부가 더 높게 나왔던 것에 비하면 임부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기대와 태도가 비교적 낮은 편임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여부에 대해 임부들의 절반 이상(56.0%)이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임부집단이 자신의

휴직보다는 남편의 휴직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산모들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남편의 휴직보다 자신의 휴직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3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응답이 그 이상의 기간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는 여성들의 마음에 경제적 이유 외에도 휴직이 퇴직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적지 않게 내재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중의 급여는 임부가 78.2만원, 산모가 50.6만원을 보고하였고, 그 액수가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임부가 76.0%, 산모가 77.3%라고 보고하였다. 이 액수는

표 34. 취업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빈도(%)

질문 및 응답 요지		임부	산모
법정 육아휴직 1년 사용여부	직장에 육아휴직 제도 없음	16(27.0)	19(35.2)
	사용하지 못했음	23(37.3)	17(31.5)
	3개월 미만	11(18.6)	13(24.1)
	3~6개월	3(5.1)	1(1.8)
	6~9개월	1(1.7)	1(1.8)
	9~12개월	6(10.2)	3(5.6)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급여	월평균(만원)	78.2	50.6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택2)	직장경력의 지속성/ 경제적 이유 때문	35(42.7)	33(42.9)
	직장을 잃을까봐	16(19.5)	17(22.1)
	동료에게 미안해서	6(7.3)	5(6.5)
	나의 발전을 위해	11(13.4)	7(9.1)
	믿고 육아를 맡길 때가 있어서	13(15.8)	8(10.4)
	기타	1(1.2)	7(9.1)
육아휴직을 위한 비용 부담 주체	본인	9(16.1)	5(10.6)
	사업주	2(3.6)	0(0.0)
	본인+사업주	6(10.7)	5(10.6)
	사회보장제도	20(35.7)	14(27.8)
	본인+사업주+건강보험	12(21.4)	13(27.7)
	사업주+건강보험	7(12.5)	8(17)
기타	0(0.0)	2(4.3)	

표 35.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획득 방식

빈도(%)

내용	부모교육의 주체/형태	학교	병원 및 보건소	책	TV	부모 이웃친지	인터넷	1회적 특강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받은 경험없음
		계획된 임신 (가족계획)	임부 산모	41(11.9) 37(12.2)	36(10.4) 24(7.9)	98(28.4) 106(35.0)	35(10.1) 25(8.2)	34(9.9) 20(6.6)	25(7.2) 19(6.3)	9(2.6) 3(1.0)
피임방법 (종류, 효과, 안전성)	임부 산모	31(8.7) 33(10.3)	43(12.0) 49(15.3)	118(33.0) 119(37.2)	37(10.3) 20(6.2)	34(9.5) 18(5.6)	43(12.0) 25(7.8)	8(2.2) 6(1.9)	6(1.7) 5(1.6)	38(10.6) 45(14.1)
임신전 준비사 항(부모건강관 리, 예방접종 등)	임부 산모	11(3.1) 9(3.0)	79(22.3) 82(27.2)	109(30.8) 108(35.9)	33(9.3) 5(1.7)	43(12.1) 30(10.0)	31(8.8) 21(7.0)	6(1.7) 2(0.7)	4(1.1) 4(1.3)	38(10.7) 40(13.3)

출산휴가기간 중의 급여보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실제 법정 육아휴직기간의 육아비 지원액(제도 실시 첫 일년간은 20만원, 그 후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음)에 비해 크게 높아서 현 육아휴직 제도와 보조비에 대한 임신부들의 지식이 매우 부정확하거나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는 적은 반면, '직장 경력의 지속성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와 '직장을 잃을까봐' 그리고, '동료에게 미안해서'가 합쳐서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는 휴직 기피의 주된 이유가 직장복귀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임을 재확인시켜준다.

육아휴직을 위한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응답(임부:35.7%, 산모:29.8%)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사업주' 및 '사업주+건강보험'(임부:12.5%, 산모:17.0%)과 합해보면, 50%내외의 응답자가 본인의 부담은 전혀 없이 육아비용을 사회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임부:51.8%, 산모:44.8%). 그 외에는 '본인+사업주+건강보험'이 20% 남짓 되었고, '본인'과 '본인+사업주'도 각각 10% 이상씩 되어, 적어도 양육비용에 대한 기대는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양육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역할분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음을 볼 수 있다.

8. 부모교육 관련 여건

1) 가족계획

많은 임신부들이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을 주로

책으로 습득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병원과 학교 등이었다(표35). 계획된 임신에 관한 내용은 학교에서 더 많이 배우고, 피임방법과 임신전 준비사항 등에 관한 내용은 병원에서 더 많이 배우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계획에 대한 특강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응답자는 2% 내외에 불과했고, 교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경우가 10~20% 정도나 되어, 부모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실함을 알 수 있다.

2) 임신

전반적으로 볼 때 임신부들은 임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책에서 얻으며 그 다음은 병원 및 보건소로서, 이들을 합하면 전체의 60~70%정도가 되었다(표36). 임신 관련사항들 중에서도 '수태과정'과 '태아발달'에 관한 정보는 TV, 학교, 또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임신중의 주의사항', '건강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부모·이웃·친지에게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임신관련 내용에 대해서 교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가 대략 1~5% 정도였고,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도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제공되는 교육은 1회적 특강으로서, 그 내용은 수태과정, 임신중 신체변화, 주의사항, 심리·정서적 변화, 발생가능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포함하나, 이 역시 2~4%정도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36. 임신에 대한 정보 획득 방식

빈도(%)

내용	부모교육의 주제/형태	학교	병원 및 보건소	책	TV	부모 이웃 친지	인터넷	1회적 특강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받은 경험없음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수태의 과정	임부	46(13.1)	64(18.2)	119(33.8)	53(15.1)	14(4.0)	22(6.2)	13(3.7)	2(0.6)	19(5.4)
	산모	37(11.5)	50(15.5)	148(46.0)	30(9.3)	14(4.3)	23(7.1)	2(0.6)	2(0.6)	16(5.0)
태아의 발달	임부	41(10.1)	74(19.8)	127(34.0)	61(16.3)	12(3.2)	30(8.0)	16(4.3)	4(1.1)	8(2.1)
	산모	31(11.5)	65(15.5)	157(46.0)	37(9.3)	9(4.3)	23(7.1)	1(0.6)	4(0.6)	10(5.0)
임신중 경험하는 신체변화	임부	22(6.0)	85(23.3)	131(36.0)	37(10.2)	36(9.9)	33(9.1)	12(3.3)	1(0.3)	7(1.9)
	산모	16(4.6)	74(21.2)	154(44.1)	23(6.6)	39(11.1)	25(7.2)	6(1.7)	2(0.6)	10(2.9)
임신중 경험하는 심리·정서 변화	임부	15(4.2)	70(19.8)	128(36.2)	39(11.0)	41(11.6)	38(10.7)	11(3.1)	2(0.6)	10(2.8)
	산모	10(3.0)	72(21.6)	156(46.9)	17(10.2)	34(10.2)	25(7.5)	4(1.2)	2(0.6)	13(3.9)
임신 중 주의 사항	임부	15(3.9)	114(30)	113(29.7)	39(10.3)	52(13.7)	30(7.9)	12(3.2)	3(0.8)	2(0.5)
	산모	9(2.5)	108(39.6)	134(36.7)	19(5.2)	64(17.5)	20(5.5)	3(0.8)	3(0.8)	5(1.4)
임신중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	임부	12(3.3)	125(34.2)	115(31.5)	32(8.8)	36(9.9)	27(7.4)	9(2.5)	2(0.6)	7(1.9)
	산모	7(2.1)	118(35)	138(40.9)	12(3.6)	25(7.4)	22(6.5)	3(0.9)	3(0.9)	9(2.7)

3) 분만

분만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곳 역시 병원 및 보건소와 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TV, 인터넷의

순으로 나와, 분만에 대해서는 부모나 이웃·친지 보다 매체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37). 1회적 특강이나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는 임신관련

표 37. 분만의 종류와 과정에 대한 정보획득방식

빈도(%)

내용	부모교육의 주제/형태	학교	병원 및 보건소	책	TV	부모 이웃친지	인터넷	1회적 특강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받은 경험없다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분만방법의 종류와 장단점	임부	3(0.8)	127(34.3)	97(26.2)	62(16.8)	23(6.2)	37(10.0)	10(2.7)	3(0.8)	8(2.2)
	산모	5(1.5)	115(34.6)	122(36.7)	29(8.7)	18(5.4)	26(7.8)	2(0.6)	2(0.6)	13(3.9)
분만의 과정과 진행 단계	임부	4(1.1)	119(32.2)	112(30.3)	52(14.1)	19(5.1)	41(11.1)	11(3.0)	3(0.8)	8(2.1)
	산모	4(1.3)	111(34.9)	121(38.0)	28(8.8)	13(4.1)	21(6.6)	4(1.3)	2(0.6)	14(4.4)
진통감소 분만방법	임부	3(0.8)	130(36.0)	104(28.8)	51(14)	19(5.3)	35(9.7)	8(2.2)	3(0.8)	8(2.2)
	산모	4(1.3)	103(33.1)	121(38.9)	23(7.4)	13(4.2)	15(4.8)	7(2.2)	6(1.9)	19(6.1)
분만시 발생 가능한 문제	임부	5(1.4)	133(37.5)	100(28.2)	33(9.3)	22(6.2)	35(9.9)	9(2.58)	4(1.1)	14(3.9)
	산모	5(1.5)	120(36.9)	116(35.7)	24(7.4)	13(4.0)	18(5.5)	3(0.9)	2(0.6)	24(7.4)

표 38. 출산전반에 대한 정보획득방식

빈도(%)

내용	부모교육의 주체/형태	학교	병원 및 보건소	책	TV	부모이웃 친지	인터넷	1회적 특강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받은 경험없다
출산 위해 준비할 물건들	임부	1(0.3)	55(14.7)	114(30.5)	39(10.4)	116(8.3)	31(0.8)	3(0.8)	3(0.8)	12(3.2)
	산모	2(0.5)	26(7.1)	142(39.0)	27(7.4)	113(31.0)	33(9.1)	0(0.0)	6(1.6)	15(4.1)
분만시 이용 가능 한 의료시설의 유 형과 장단점	임부	0(0.0)	72(21.4)	94(28.0)	33(9.8)	60(17.9)	36(10.7)	9(2.7)	0(0.0)	32(9.5)
	산모	1(0.3)	55(17.2)	114(35.7)	20(6.3)	47(14.7)	33(10.3)	1(0.3)	4(1.2)	44(13.8)
분만의 때가 되었 음을 아는 방법	임부	2(0.5)	112(30.6)	106(29.0)	25(6.8)	82(22.4)	26(7.1)	3(0.8)	1(0.3)	9(2.5)
	산모	2(0.6)	99(27.6)	129(35.9)	9(2.5)	82(22.8)	16(4.5)	3(0.8)	4(1.1)	15(4.2)
출산을 위한 점검 및 대비사항	임부	1(0.3)	81(23.2)	87(24.9)	23(6.6)	110(31.5)	26(7.4)	2(0.6)	3(0.9)	16(4.6)
	산모	1(0.3)	75(22.3)	95(28.3)	10(3.0)	108(32.1)	16(4.8)	2(0.6)	4(1.2)	25(7.4)
응급상황시 대처 방법	임부	3(1.0)	96(31.2)	70(22.7)	21(6.8)	63(20.4)	18(5.8)	4(1.3)	3(1.0)	30(9.7)
	산모	1(0.3)	95(30.2)	99(31.4)	11(3.5)	60(19.0)	12(3.8)	1(0.3)	5(1.6)	31(9.8)

경우보다 더 낮아 1~2%에 불과했다. 임신과 분만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산모는 임부보다 책을, 임부는 산모보다 TV를 선호하는 흥미로운 차이를 보였다.

4) 출산준비

출산에 관한 학습 역시 주로 책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이용할 의료시설 유형별 장단점, 분만 시기의 단서, 응급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는 병원과 보건소로부터, 출산을 위한 점검·대비사항들은 부모·이웃·친지로부터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교육받은 경험없다'를 통해서 보면, 교육이 가

장 부족한 영역은 이용가능한 의료시설의 유형과 장단점, 및 응급시 대처방법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부들에게 병원별 특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특히 응급시 안전교육이 크게 부족함을 지적해 준다.

5) 산후조리

산후조리에 대한 교육 역시 책이 1위를 지키는 가운데, 부모·이웃·친지가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병원 및 보건소, 인터넷의 순으로 나왔다(표 39). 1회적 특강이나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여전히 1~2%에 불과했고, '교육받은 경험 없

표 39. 산후조리에 대한 정보획득방식

빈도(%)

내용	부모교육의 주체/형태	학교	병원 및 보건소	책	TV	부모이웃 친지	인터넷	1회적 특강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받은 경험없다
산후조리 기간중의 신체적 변화 문제	임부	2(0.6)	74(21.6)	97(28.3)	15(4.4)	92(26.8)	26(7.6)	6(1.7)	4(1.2)	27(7.9)
	산모	3(0.9)	65(19.3)	112(33.2)	12(3.6)	97(28.8)	18(5.3)	4(1.2)	6(1.8)	20(5.9)
산후 신체회복을 돕는 방법	임부	0(0.0)	66(18.5)	108(30.3)	19(5.3)	104(29.2)	29(8.1)	7(2.0)	4(1.1)	19(5.3)
	산모	1(0.3)	58(16.6)	122(35.0)	16(4.6)	110(31.5)	21(6.0)	3(0.9)	6(1.7)	12(3.4)
산후조리 기간 중의 심리·정서적 변화 문제	임부	0(0.0)	63(18.7)	101(30.1)	22(6.5)	89(26.5)	20(5.9)	9(2.7)	2(0.6)	30(8.9)
	산모	0(0.0)	47(14.5)	124(38.1)	16(4.9)	79(24.3)	24(7.4)	5(1.5)	4(1.2)	26(8.0)
산후 심리적 적응을 돕는 방법	임부	3(0.9)	52(15.2)	96(28.1)	21(6.1)	99(28.9)	26(7.6)	5(1.5)	4(1.2)	36(10.5)
	산모	1(0.3)	32(10.6)	114(37.6)	13(4.3)	82(27.1)	19(6.3)	6(2.0)	6(2.0)	30(9.9)
산후조리시 조심해 야 하는 행동	임부	2(0.5)	70(18.3)	79(20.6)	20(5.2)	163(42.6)	24(6.3)	8(2.1)	7(1.8)	10(2.6)
	산모	1(0.3)	60(16.8)	93(26.0)	13(3.6)	158(44.3)	16(4.5)	4(1.1)	7(2.0)	5(1.4)

표 41. 영아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경험

빈도(%)

내용	부모교육의 주체/형태		학교	병원 및 보건소	책	TV	부모이웃 친지	인터넷	1회적 특강	부모교육 프로그램	교육받은 경험없다
	임부	산모									
신생아 돌보기	임부	4(1.2)	55(16.2)	97(28.5)	25(7.3)	124(36.5)	15(4.4)	4(1.2)	3(0.9)	13(3.8)	
	산모	4(1.1)	47(13.2)	130(36.0)	14(3.9)	124(34.8)	17(4.8)	1(0.3)	5(1.4)	14(3.9)	
수유방법별 장·단점	임부	4(1.1)	63(18.1)	113(32.5)	34(9.8)	92(26.4)	21(6.0)	9(2.6)	3(0.9)	9(2.6)	
	산모	4(1.1)	59(16.6)	138(38.9)	24(6.8)	80(22.5)	21(5.9)	6(1.7)	8(2.2)	15(4.2)	
수유시간과 양 수유자세	임부	3(0.9)	62(18.3)	102(30.1)	21(6.2)	104(30.7)	17(5.0)	7(2.1)	5(1.5)	18(5.3)	
	산모	0(0.0)	68(19.1)	127(35.8)	12(3.4)	100(28.2)	16(4.5)	5(1.4)	8(2.2)	19(5.3)	
이유시기 및 영양관리	임부	2(0.6)	74(21.4)	120(34.7)	19(5.5)	87(25.1)	18(5.2)	6(1.7)	2(0.6)	18(5.2)	
	산모	0(0.0)	44(13.3)	148(44.7)	10(3.0)	78(23.6)	21(6.3)	5(1.5)	6(1.8)	19(5.7)	
신생아 및 영아기 예방 접종	임부	2(0.6)	149(42.0)	86(24.2)	16(4.5)	64(18.0)	21(5.9)	5(1.4)	2(0.6)	10(2.8)	
	산모	1(0.3)	158(44.4)	116(32.6)	11(3.1)	44(12.4)	12(3.4)	0(0.0)	3(0.8)	11(3.1)	
걸리기 쉬운 질병 및 대처방법	임부	2(0.6)	122(36.4)	91(27.2)	12(3.6)	62(18.5)	18(5.4)	4(1.2)	2(0.6)	22(6.6)	
	산모	2(0.6)	114(34.0)	114(34.0)	11(3.3)	46(13.9)	15(4.5)	2(0.6)	4(1.2)	22(6.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임부	4(1.3)	58(18.3)	99(31.3)	29(9.2)	47(14.9)	18(5.7)	4(1.3)	5(1.6)	52(16.5)	
	산모	3(1.0)	46(15.0)	117(38.0)	21(6.9)	47(15.4)	16(5.2)	1(0.3)	2(0.6)	53(17.3)	
응급시 처치 요령	임부	4(1.3)	59(19.2)	113(36.8)	26(8.5)	31(10.1)	16(5.2)	3(1.0)	6(1.9)	49(16.0)	
	산모	3(1.0)	49(16.5)	115(38.8)	13(4.4)	34(6.1)	18(6.1)	3(1.0)	4(1.3)	57(19.3)	
영아기 발달 과업	임부	11(3.5)	44(14.1)	119(38.1)	31(9.9)	23(7.4)	19(6.1)	4(1.3)	5(1.6)	56(17.9)	
	산모	10(3.4)	20(6.9)	143(49.3)	13(4.5)	19(6.5)	19(6.5)	0(0.0)	3(1.0)	58(20.0)	
영아기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	임부	10(3.1)	26(8.1)	130(40.6)	44(13.7)	247(7.5)	31(9.7)	6(1.9)	6(1.9)	43(13.4)	
	산모	6(1.9)	22(6.7)	150(47.5)	32(10.1)	18(5.7)	18(5.7)	2(0.6)	10(3.2)	47(14.9)	
영아기 문제행 등의 의미와 대처방법	임부	6(1.9)	28(8.9)	118(37.7)	29(9.3)	36(11.5)	26(8.3)	6(1.9)	5(1.6)	59(18.8)	
	산모	6(2.0)	22(7.4)	117(39.3)	17(5.7)	21(7.0)	21(7.0)	3(1.0)	9(3.0)	78(26.2)	
영아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 방법	임부	7(2.3)	25(8.2)	110(36.3)	26(8.6)	38(12.5)	26(8.6)	6(2.0)	3(1.0)	62(20.5)	
	산모	5(1.7)	19(6.5)	121(41.4)	19(6.5)	20(6.8)	20(6.8)	2(0.7)	8(2.7)	75(25.7)	
바람직한 환경 구성 방법	임부	6(2.0)	25(8.2)	98(32.3)	25(8.2)	33(10.9)	30(9.9)	5(1.6)	4(1.3)	77(25.4)	
	산모	5(1.7)	16(5.5)	118(40.4)	19(6.5)	22(7.5)	22(7.5)	0(0.0)	6(2.0)	81(27.7)	
바람직한 놀이 감의 선택과 놀이방법	임부	6(1.9)	24(7.8)	96(31.1)	25(8.1)	39(12.6)	36(11.6)	4(1.3)	5(1.6)	74(23.9)	
	산모	5(1.7)	9(3.0)	132(43.7)	20(6.6)	21(6.9)	21(6.9)	0(0.0)	4(1.3)	82(27.1)	

다'는 임신, 출산, 분만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임신부를 위한 교육이 주로 임신기간과 분만에 집중되어 있고, 출산 후의 건강과 적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함을 반증한다. '교육받은 경험없다'로 볼 때 제일 부족한 영역은 '산후심리적 적응을 돕는 방법'이었다. 많은 산모들

이 산후우울을 경험하며, 어머니의 우울이 영아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출산전후의 부모들을 위한 부모 교육에는 산후의 건강한 회복과 적응을 적극적으로 돕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표 41. 부모교육 영역별 필요성 인식 빈도(%)

부모교육 내용		필요도 ¹⁾
가족계획에 대하여	임부	2.9
	산모	2.9
임신에 대하여	임부	3.2
	산모	3.1
분만에 대하여	임부	3.2
	산모	3.1
출산준비에 대하여	임부	3.2
	산모	3.1
산후조리에 대하여	임부	3.3
	산모	3.2
자녀양육(신생아 및 영아돌보기)에 대하여	임부	3.3
	산모	3.3

1) 4점 척도였음(1: 별로 필요없다, 2: 필요할 것 같다, 3: 필요하다, 4: 매우 필요하다)

지속성 있으면서 출산후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임신부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6) 양육

‘신생아 돌보기’에서부터 ‘바람직한 놀이감의 선택과 놀이 방법’에 이르기까지, 출산후 영아 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에 대해 임신부들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정보를 습득하는가? <표 41>에서, 역시 책이 중요한 정보원임을 제외하고 본다면, ‘신생아 돌보기’에서부터 ‘질병 및 대처방법’까지는 대부분의 정보를 병원 및 보건소와 부모·이웃·친지로부터 얻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안전, 응급처치, 영아기 발달과업, 영아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 바람직한 환경구성 등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육받은 경험없다’의 응답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이 주의를 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출산후를 위한 부모교육이 매우 취약함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산후조리와 적응 뿐 아니라 신생아와 영아양육에 대한 신뢰롭고 종합적인 교육이 거의 부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정작 중요하고도 책임있는 양육이 시작되어야 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아기의 양육과 보살핌이 전혀 경험없고 자신없는, 또는 동기과 의지가

박약한 부모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7) 부모교육 영역별 필요성

임신·출산 및 양육관련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다. 대체로 임부가 산모에 비해 필요성 인식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41). 필요성 인식 평균 점수로 볼 때, 임신부들이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자녀양육영역이었다(3.3점). 다른 어느 영역보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도 실제로 교육을 받을 기회는 가장 부족한 영역이 자녀양육 부문이라는 것은 임신부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그동안 주요 발달이론들과 많은 학자들, 임상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해온 생후 첫 1년과 영아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이 시기를 간과해 왔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8) 부모역할 수행의 장애요인과 지원요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으로, 가장 많은 임신부가 꼽은 것은 ‘보육서비스 질 개선 및 향상’(임부:23.1%, 산

표 42. 영유아 양육의 장애요인과 지원 요인

빈도(%)

문항 요지		임부	산모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도움과 정책적 배려(택3)	육아 휴직제도 정착	145(19.4)	136(19.1)
	영아전담 보육시설 증설	114(15.3)	132(18.5)
	보육서비스 질 개선 및 향상	172(23.1)	150(21.0)
	보육료 인하 또는 보육료 지원	119(16.0)	126(17.7)
	직장 탁아제 정착	68(9.1)	66(9.2)
	양육 정보 제공	88(11.8)	75(10.5)
	믿을 수 있는 양육 도우미 소개	40(5.4)	26(3.6)
	기타	0(0.0)	3(0.4)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현실적 요인 (택3)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부족	126(16.8)
영아 양육에 관한 이론적 지식 및 정보 부족		112(15.0)	139(18.8)
영아 양육에 필요한 실제적 기술 부족		136(18.2)	128(17.3)
경제력 부족		92(12.3)	77(10.4)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의 부족		95(12.6)	87(11.8)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질 상의 문제		66(8.8)	53(7.2)
배우자의 무관심과 비협조		37(4.9)	31(4.2)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혼란		43(5.7)	27(3.7)
꼭 필요한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42(5.6)	38(5.2)
기타		1(0.1)	3(0.4)

모:21.0%)이었고, 그 다음이 ‘육아휴직제도 정착’이었다. ‘보육료 인하 또는 보육료 지원’(임부:16.0%, 산모:17.7%)과 ‘영아전담 보육시설 증설’(임부:15.3%, 산모:18.5%)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높았다. 임부집단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은 보육서비스 질 개선 및 향상과 같은 보다 질적이고 이상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요구인데 반해, 산모집단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은 영아전담 보육시설 증설이라든가 보육료 인하/지원과 같은 보다 현실화된 내용들이었다(표42). 이는 산모집단의 현실인식과 요구가 임부집단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쪽으로 변해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을 반영하고 있다.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에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임부의 경우는 영아양육 기술부족, 바람직한 부모역할 지식과 정보 부족, 영아양육 지식과 정보 부족 등의 순으로 나왔고, 산모의 경우는 ‘바람직한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 영아양육의 이론적 지식과 정보 부족, 영아양육의 실제기술 부족의 순으로 나와, 두 집단의 문제인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임부는 영아양육의 실제기술을 습득하면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비해, 산모집단은 부모역할을 기술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먼저 ‘바람직한 부모역할’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자각과 이해가 있어야 함을 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부모역할을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결론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출산 전후 시기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지역내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여건과 주어진 현실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들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역할 변화에 관련된 부모교육의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발견된 사실들과 논의된 사항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 및 육아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결론

1)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휴가는 물론 육아휴직

제도의 내실화와 더불어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전폭적 지원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않으려는 이유에 자의와 관계없는 직장관련 이유가 절반을 훨씬 넘는다거나, 자녀의 출산과 영아 양육 과정에서 큰아이 돌보기가 여전히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그간 1년 반 이상에 걸쳐 실행되어온 육아휴직제도의 성과와 효력이 아직은 미미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이 보다 능동적인 자세와 강력한 의지로 제도 정착과 모성보호의 사회화를 이루어 나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출산에서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많은 남편들이 보여준 긍정적 태도와 자발적 참여는 남편들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당사자들에 의해서도 점차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 2)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부부 각자의 인식과 태도 중 일부는 그들의 학력과 소득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여,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자발성과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발견된 만큼, 누구보다 그러한 제도를 필요로 하는 그들이 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 일때는 가능한 형태의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배우자 직장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는 물론 자신들의 휴가와 휴직 조건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휴가와 휴직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적절한 휴가활용을 하지 못하는 임신부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제도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계몽활동과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영아전담 시설과 직장탁아 시설이 3%에 불과하고,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주유나 직장에 보육시설이 없다거나 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은 보육관련 정보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육 시설 선택과 이용에 관련된 정보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연구검토가 요구된다.

- 4) 임신부의 절대 다수가 육아를 본인이, 본인집에서, 주 7일을 하루 24시간씩 한다고 보고한 사실과 더불어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임신기간중의 건강에 대해 불안이 더 크고 다양한 양육관련 도움과 지원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는 발견은 비단 취업모 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들이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믿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해주며, 이런 의미에서 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향상 및 보육수요에 따른 형태의 다양화와 공보육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 5) 임신기간, 출산, 산후조리의 전 과정에 걸쳐 가장 일관되게, 가장 큰 도움(가사노동·육아조력, 재정적·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주는 인물은 친정부모로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그들의 고유한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직장여성들의 친정부모 부양 및 지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부모교육을 위한 결론

- 1) 출산전후의 부모들이 보고한 부모교육관련 경험들은 내용영역에 관계없이 주로 책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필요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 일부는 병원에서, 일부는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특정영역의 지식은 TV나 인터넷에서 습득하는 형태여서 다분히 체계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던 만큼, 이제는 이 시기 부모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성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2) 임신부를 위한 교육이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로 의료시설에서 임부들만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동안만 제공되는 형태의 부모교육일 가능성이 큰데, 부모교육 하위영역들 가운데서 정작 부모들이 가장 필요한 내용은 자녀양육에 관한 것이어서, 신생아기와 영아기의 안전과 응급처치, 발달, 부모자녀관계, 바람직한 환경구성, 놀이

감 선택, 문제행동 대처등이 포함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받은 경험 없다'라는 응답이 다른 내용들의 5~10배 이상이 나 되어, 가장 요구도는 높으면서도 실제로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온 영역이기 때문이다.

- 3) 임신 중 정기검진과 관련해서 비용부담과 검사에 대한 안내부족이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서 보고된 일부 검사의 남용(초음파: 평균 1~2개월에 한번)과 높은 제왕절개 수술을 등은 임신부들에게 제반 검사의 종류와 필요성 및 안전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자료와 함께 안내와 지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제작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4) 초산과 경산, 취업과 비취업, 학력과 소득 등에 따라 나타난 다양하고 미묘한 차이들(정기검진 관련 기대와 태도-요구정보 내용, 불안 수준, 주위 의존도, 노력과 주의, 심리적·시간적 여유 등-, 태교시 중시하는 내용, 산후조리 비용, 수유기간, 양육도움의 필요도, 남편의 태도에 대한 인지 및 남편의 참여에 대한 기대, 남편과 본인의 휴직에 대한 태도 등에서 발견된 차이들)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자료화하여 부모교육과 상담시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부모가 자신의 현재 위치와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해주고, 보다 지혜롭게 현실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정교하고 개별화된 상담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대전지역에서 출산 전후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이 경험하는 출산과 양육의 여건과 그들의 부모교육 관련경험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해 보고자 한 연구로서, 장차 대전시가 출산과 육아 및 모성보호, 또는 여성과 가족복지등에 연관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참고가 될 기초자료를 영역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또 한가

지 의의는, 2001년 11월에 도입된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은 상황에서 그 제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적절히 활용되어 예비부모와 젊은 부모들이 그들이 처한 여건에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활용하면서 지혜롭고 건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자녀출산, 양육여건, 부모교육, 실태조사

참고문헌

- 김엘림(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96 연구보고서 200-6.
- 김은경(2001). 사회적 지원이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15.
- 노영주(2000). 초기모성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71-83.
- 도미향, 이소희(2000).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가족복지감에 미친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5(1), 1-17.
- 도미향, 최의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부부간 의사소통 양식 및 그 상호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 류정숙(2000). 기혼 취업여성을 위한 가족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애(2001). 육아정책의 과제와 전망 -영아 보육을 중심으로-. 한국 YWCA 제6회 여성포럼 자료집.
- 이형실(2001).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가족 및 직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43-152.
- 전숙영(1995).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탁아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수현, 김경희(2001). 임신부의 임신스트레스와 대처반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2),

- 115-128.
조선일보 2001.10.26, 2003.1.4,
중앙일보 2003.1.6
Alison Clarke-Stewart(1994). Day Care-Good or
Bad for Children?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
발센터 1994 국제학술대회 「우리탁아의 질,
어디로 가야 하는가?」. 131-146
Liz Cowley(1994). Current Issues in Day Care:
Links between Britain and Korea. 탁아의
현안 문제점: 영국과 한국의 연계성. 삼성
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1994 국제학술대
회 「우리탁아의 질, 어디로 가야 하는가?」.
35-49, 51-65.
(2003. 8. 31 접수; 2003. 10 .10 채택)